

국제 문화교류와 한국인의 언어생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국제학술대회 '언어의식과 국어정책' 집담회 발표문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

일시/장소: 10월 8일(금) 16:20-18:00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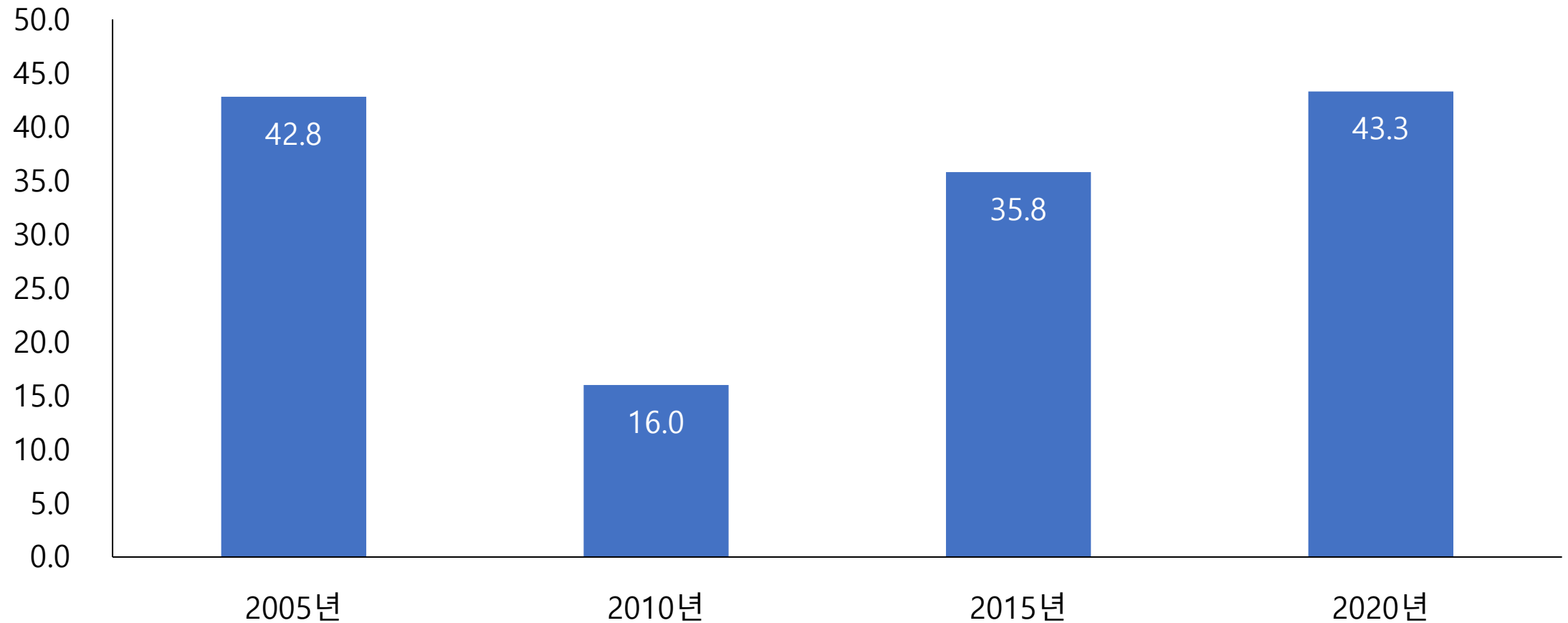
1. 외래어와 외국어

한국인의 적응

<표 1>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	사례 수	①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②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많이 사용된다	⑤ 매우 많이 사용된다	①+ ②	③	④+⑤	계
2005년	(4055)	2.7	14.8	22.3	48.6	11.6	17.4	22.3	60.2	100.0
2010년	(5000)	6.5	21.6	27.8	37.6	6.5	28.1	27.8	44.1	100.0
2015년	(5000)	3.8	16.9	22.7	49.4	7.2	20.8	22.7	56.6	100.0
2020년	(5000)	1.0	10.0	34.6	48.7	5.6	11.0	34.6	54.3	100.0

[그림 1] 외래어·외국어 사용빈도 (%p)



외래어·외국어 사용 지수=(④+⑤)-(①+②) (%p)

<표 2> 평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지?

(단위 : %)	사례 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 ②	③	④ + ⑤	계
2020년	(5000)	3.4	27.7	45.4	23.2	0.4	31.1	45.4	23.5	100.0

외래어 · 외국어 사용 지수=(④+⑤)-(①+②) (%p) --> -7.6%p

<표 3>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해석 [같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만]

(단위 : %)	사례수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보다 더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상관없다	지금보다 대폭 줄여가야 한다	모름/무응답	계
2005년	(3349)	58.1	8.2	21.8	11.0	0.5	0.3	100.0
2010년	(3513)	54.0	5.5	21.7	18.0	0.7	0.1	100.0
2015년	(3964)	54.1	7.2	26.5	11.2	0.9	0.1	100.0
2020년	(2716)	50.1	19.7	17.4	8.5	4.3	-	100.0

외래어·외국어 사용

- 사회에서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가 2010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
- 2020년 조사에서 자기 자신이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많이 사용한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보다는 '적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음
- 응답자는 덜 사용하는 데 타인들(대중매체 포함)이 외래어·외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
- 외래어·외국어 사용 증가에 대한 해석: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가 과반 (예) fertility 출산력 = 서양학문에서 도입된 개념

<표 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단위 : %), 괄호안의 숫자는 순위임	사례수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외래어/외국어로 된 전문 용어 사용 능력이 있어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단 세련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색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타	계
2005년	(4055)	28.9	8.7	4.6	39.9	15.5	2.4	100.0
2010년	(5000)	30.1	11.4	16.9	28.4	12.7	0.5	100.0
2015년	(5000)	30.7	13.9	10.0	30.3	14.7	0.5	100.0
2020년	(5000)	41.2	22.9	15.7	10.5	9.4	0.4	100.0

<표 5>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단위 : %), 괄호안의 숫자는 순위임	사례수	별 느낌이 없다	잘난 척하는 느낌이다	세련된 느낌이 든다	학식이 높아 보인다	유치해 보인다	기타	계
2005년	(4055)	39.9	-	9.5	8.7	-	0.9	100.0
2010년	(5000)	32.8	23.4	18.4	16.2	9.0	0.3	100.0
2015년	(5000)	47.3	22.2	12.3	9.0	9.1	0.1	100.0
2020년	(5000)	34.3	22.0	21.9	13.5	8.1	0.1	100.0

외래어·외국어 사용에 대한 평가

- 외래어·외국어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가장 많이 선택.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경향이 증대.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의 증가와 맞물리는 현상으로 이해 가능 (예) 사실 fact. --> 고학력화로 인해 영어(등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든 것으로 이해 가능. 외래어·외국어가 국어에 편입되는 현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이는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가장 다수 응답이 '별 느낌이 없다'
-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전지구화 경향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 가능. 한국어 어휘의 확장 가능성

2. 이주민의 외국어 사용

이주민의 적응

<표 6>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

(단위 : %)	사례 수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다소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⑤	계
2020년	(5000)	1.5	11.8	42.0	39.7	5.0	13.3	42.0	44.7	100.0

이주민의 모어 사용 평가 지수=(④+⑤)-(①+②) (%p) --> 31.4%p

이주민의 모어(본국어) 사용

- '긍정적' 평가가 44.7%로 가장 많음. 그 다음은 '보통이다' 42.0%
- 그러나 '부정적' 평가가 13.3%에 달한다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는 공공장소라기보다는 사적 공간. 그곳에서 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는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예상 외로 높음
- 용광로 은유로 압축되는 동화(assimilation) 모형은 초국적이주가 활성화된 오늘날 이주민 사회통합 방식으로 한계에 봉착.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이주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출신국과 이 사회적/문화적 연결이 지속됨 → 모어(본국어)를 잊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짐

<표 7>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이주민 모어 사용을 보통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까닭

(단위 : %)	사례수	자신의 모어를 사용하고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데	이주민의 모어 능력을 개인적, 국가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계
2020년	(4334)	45.2	22.8	19.7	12.2	0.1	100.0

<표 8> 이주민과 자녀에게 국가가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

(단위 : %)	사례 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⑤	계
2020년	(5000)	1.8	9.9	31.5	50.8	6.0	11.7	31.5	56.8	100.0

국가의 이주민 한국어 교육 필요성 지수=(④+⑤)-(①+②) (%p) --> 45.1%p

<표 9> 이주민과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 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통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사례수	한국 사회 에 적응하 고 통합되 는 것을 촉진하므 로	한국 사회 구성원이 라는 의식 형성에 필 수적이므 로	한국어 능 력이 국가 의 경쟁력 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 로	기타	계
2020년	(4415)	42.7	36.7	20.5	0.1	100.0

이주민의 모어 사용과 한국어 교육 지원

-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까닭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 가장 많음
- 그러면서도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국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 → 한국어 교육은 '동화모형'뿐 아니라 '다문화모형' 또는 '간문화interculturalism모형'에서도 강조하는 개념. 이주민이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인적자본
- 한국인들은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응/통합'과 '한국사회 구성원 의식 형성'이라는 두 사항을 강조

<표 10>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 %)	사례 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계
2020년	(5000)	2.2	11.7	30.8	50.0	5.3	13.9	30.8	55.3	100.0

국가의 이주민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필요성 지수=(④+⑤)-(①+②) (%p) --> 41.4%p

<표 1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사례수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은 개인의 필요와 선택의 문제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
2020년	(693)	46.2	43.5	10.2	100.0

<표 1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사례수	한국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원하므로	국네트 구축하므로	한국에 우호적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과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기타	계
2020년	(4307)	40.6		38.8	20.5	0.2	100.0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훨씬 높음
- 반대하는 이유: 세금, 개인의 선택 문제
- 찬성하는 이유: 국제적 네트워크, 한국에 우호적 인재 양성

3. 세계화된 한국사회의 언어 생활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 적응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적응

-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적 증가는 한국인과 이주민이 만나는 접면interface을 확대시킴
-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외래어/외국어 사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함.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외래어/외국어를 사용
- 이주민의 언어생활에서 모어 사용은 중요하고 한국인이 다수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함. 그러면서도 이주민의 적응/통합,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세계화시대 한국인의 언어 생활(과 그에 대한 태도) 역시 세계화되어 가고 있음